

# 군산 개야도항, 국가어항 승격

### 수산물 생산거점으로 탈바꿈... 부두 확충·보관창고·위판장 등 부지 조성

전북도는 군산 옥도면에 소재한 개야도항이 지방어항(1972. 4. 12)으로 지정된 이후 오는 28일부터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어 낙후된 어항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12월 개야도항에 대한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으로 선정 하였으나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항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2018년도에 국가어항 지정 및 해체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어선 대형화,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어항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지정기준 개편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하게 됐다. 개야도항은 지리적으로 군산에서 2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서해의 다른 섬에 비하여 경지율이 높으며, 봄·여름철에는 제주 난류의 북상에 따라서 조기, 갈치, 삼치, 도미, 대하 등의 난해성 어종들이 모여 들기 때문에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어구 등을 도모에 적재하고 있어 미관이 불량하며, 항내 수심이 부족하여 어선이 상시 접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선척수에 비해 접안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야도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개야도항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간 국비 853억원을 투자해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양육이 가능하도록 선석수심 확보, 어선부두 확충, 어구보관창고와 위판장 조성, 차도선과 유조선이 어선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남방파제 외측에 배치하여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도 김해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이번 개야도항이 신규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입장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모디 인도 총리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내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4자리 추가 표시 시행

전북도는 내일부터 산란계 농가 등이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에 산란일자 4자리를 추가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는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보아 채집한 날을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23일 달걀을 채집하는 경우 36시간 이전에 산란한 것까지

0223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보관·운반·판매 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로컬푸

드에 납품하거나 직거래 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표시하여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난각인쇄기, 달걀채취기 등 시설비를 5천만원 한도에서 70%까지 보조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 단속이 6개월간 유예되어 이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보험료는 덜 내고, 자연재난 피해 복구는 쉽게

### 도, 풍수해보험가입 확대 추진

전북도가 여름철 호우·태풍,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활동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현장행정을 지난 15일부터 군산·김제시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오는 3월 12일까지 14개 시군에 대해 현장행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현장행정은 도내 시군의 풍수해보험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인 풍수해보험 홍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NH농협손해, DB손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시·군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가입시에는 주민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주택

(80㎡)이 침수되었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1백만 원이 지급되나, 풍수해보험은 주민이 자부담보험료 연간 2만원 정도를 내면 보험금은 최대 7,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수령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북도는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해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전담 장구를 마련하는 한편, 민영보험사와 합동으로 읍·면·동 풍수해보험 현장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호우·태풍, 지진 등 피해발생에 대비해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치고,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130명 임명장 수여식 가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1일 오전 10시 2층 강당에서 2019년 3월 1일자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발령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서는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등 교육연구관 4명,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등 장학관 8명, 교장 전직 9명, 교감·원장 승진 41명, 공모교장 4명, 원감 전직 1명, 교감·원감 승진 41명, 수석교사 11명,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11명 등 총 130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 승진 및 전직을 통해 새로운 임직

로 가는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발령자들에게 탁월한 능력과 존경받는 인성으로 전북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축하하며,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초등교원으로 구성된 '동요생양상' (부귀초 교사 유경수 등 5명)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멋진 연주와 배경음악으로 수여식의 분위기를 한껏 돋워 주었고, 전북아카펠라음악교육연구회 '꽃



발령이(북흥초 교사 임대우 등 7명)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 울림을 주었으며, '행복더하기' 중창단의 감격찬 축하노래가 임명장 수여식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은성 기자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저출산 극복

### 전북도, 정부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업 추진

전북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중앙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수용하여 함께출산을 보듬는 도민의 삶이 질과 행복추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일방적 지원·홍보방식을 탈피하여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북연구원을 활용(연구용역 등), 적극 발굴·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발포에 따라 차질 없이 정부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 도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서두르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

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미숙아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고위험 산모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확충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최대80→90%) 부담을 줄여나간다.

아울러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10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초동돌봄센터를 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도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한부

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도는 기관 간 비공개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심쿵! 설레는 인연만들기'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고, 오픈 공간에서 공개적 만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섬에서 운명'으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돌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여성과 청소년·아동 등 모든 사회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